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 리포트

■ 일본 제조업 르네상스의 현황과 시사점
- 도약을 준비중인 일본 제조업 -

목 차

- 일본 제조업 르네상스의 현황과 시사점
 - 도약을 준비중인 일본 제조업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일본 제조업의 재생 현황 점검	3
3. 시사점	11
※ 참고: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 추진 경위, 주요 내용 및 평가 결과	13

Executive Summary

< 요약 >

■ 개요

금년은 일본 제2차 아베 내각이 경제 성장 전략인 아베노믹스를 실행한 지 4년째 되는 해이다. 지난 2013년 수립된 아베노믹스는 앞으로 '재생의 10년' 동안 평균 명목 GDP 성장률 3%, 실질 GDP 성장률 2% 실현을 목표로 이른바 '3개의 화살'이라는 실행 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다. 제1화살인 '대담한 금융 정책' 그리고 제2화살인 '신속한 재정 정책'의 실행을 통해 디플레 탈피와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 현재 국민과 기업의 자신감 회복을 토대로, 기대를 행동으로 변화시키는 제3화살인 '신성장 전략'(『일본재흥전략』)을 추진하는 단계에 있다. 본 보고서는 지난 3년간 아베노믹스 실행에 따른 일본 제조업의 변화를 점검해 제조업의 재생 여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투자 촉진, 혁신 창출, 고용 확대 등 주요 정책 실행 영역에서 평가 지표를 도출하고, 여기에 성과 지표를 더해 총 7개의 지표(투입 지표 2개, 결과 지표 5개)를 선정하여 평가하였다. 투입 지표는 ①설비 투자, ②R&D이며, 결과 지표는 ③업황(생산, 출하, 재고), ④고용, ⑤재무실적, ⑥리쇼어링(reshoring), ⑦노동생산성이다.

■ 일본 제조업의 재생 현황 점검

○ 투입 지표: 설비투자, R&D 모두 아베노믹스 시행 이전과 비교해 아직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제조업 설비투자**는 아베노믹스 시행 초기인 2013년 상반기부터 바닥을 벗어나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4년(13.7조원)은 전년대비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부진했던 2013년 대비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며, 투자 규모면에서는 2012년(13.7조원) 수준에 불과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R&D 측면에서도 제조업의 R&D집약도(=R&D/매출액)는 거의 변동 없으며, 정부의 산업생산기술 R&D 규모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일본 제조업의 R&D 투자 규모는 2014년에 전년 대비 5.2% 증가를 보였으나, R&D 집약도는 아베노믹스 전후 수준과 거의 비슷한 추이다. 더욱이 정부의 R&D 예산(국방 제외) 중 산업 제품 및 제조공정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생산기술 R&D는 2012년 대비 2014년에 7.1% 감소했다.

< 제조업 설비투자 추이 (분기별) >



< 제조업 노동생산성 (월별) >



자료 : 일본 재무성, 法人企業統計調査. 각호.

자료 : (財)日本生産性本部, 『生産性統計』.

○ **결과 지표:** **업황**과 관련해서 생산, 출하, 재고 추이가 아베노믹스 실행 이후 일시적으로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곧 '생산 감소 - 출하 감소 - 재고 증가'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둔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만 아직 판단이 이르지만 2015년 11월 재고가 전년 동월 대비 -0.5%, 출하는 +0.7%로서 둔화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용과 관련해서 정책 시행 초기에 늘어났던 제조업 취업자가 2014년 9월부터 감소세로 전환했으며, 여성과 5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 비중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재무실적에서는 분기별 기준으로 매출액(성장성)은 정체, 영업이익(수익성)은 소폭 개선, 부채비율(건전성)은 개선되고 있다. 제조업 매출액은 아베노믹스 시행에도 거의 변화없으며, 매출액증감률은 2014년 1분기 이후 0%대로 급락했다. 반면에 영업이익은 소폭 상승하면서 매출액영업이익률이 +4~5%대를 보이면서 수익성은 개선되고 있다. 부채비율도 2014년 2분기부터 하락하면서 2015년 3분기에 108.4%를 보였다. 특히 자본금 10억엔 이상 제조업체는 2015년 3분기에 94.7%로 부채보다 자본이 많다.

해외 생산을 국내 생산으로 전환 및 전환 계획을 결정한 **리쇼어링(reshoring)** 추진 기업은 조사대상업체 약 390개사중 약 7%에 달한다.(일본정책투자은행, 2015.8월 조사). 리쇼어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앞으로도 해외 수요가 유망하고 해외 생산의 비용 이점이 존재한다고 꼽고 있어, 엔화 약세가 진행되어도 리쇼어링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아베노믹스 시행 초기 약 1년간 증가세를 지속했으나, 2014년 하반기부터 오히려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그 추세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일본 제조업에 『일본재흥전략』의 정책 슬로건인 <자신감을 회복해 '기대'에서 '행동'으로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일본 정책이 차세대 제조 혁신 등 미래 투자에 의한 생산성 혁신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그동안 재무 체질을 강화해 온 일본 제조업은 강력한 정책적 뒷받침을 배경으로 이제부터 르네상스로의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제조업 재생에 관한 종합 평가 >

항목		평가 내용
투입	설비투자	- 제조업 설비투자는 증가세로 전환했으나, 규모 수준은 미흡
	R&D	- R&D집약도는 거의 변동없고, 산업생산기술R&D는 오히려 축소
결과	업황	- 생산 감소, 출하 감소, 재고 증가세
	고용	- 전체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 여성과 고령자 고용 비중이 증가
	재무실적	- 영업이익 소폭 개선, 부채비율 개선, 다만 매출액 정체
	리쇼어링	- 리쇼어링 추진 기업은 조사대상 제조업체의 약 7%
	노동생산성	- 시행 초기 개선되었으나 2014년 하반기부터 감소세로 전환

■ 시사점

첫째, 향후 예상되는 일본 정부의 실효적이면서 강력한 제조업 재생 정책을 예의 주시 하면서, 우리의 기존 제조업 혁신 정책을 조기 실행 또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둘째, 2020년 도쿄올림픽을 겨냥하여 일본 정부가 수립한 경제성장전략(『개혁 2020』)에 대응하여 기술 개발과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요청된다. 셋째, 차세대 제조업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민간과 정부, 학계의 긴밀한 협력이 요청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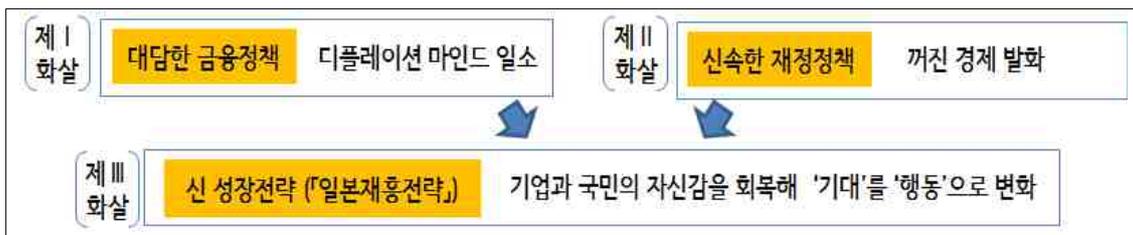
1. 개요

○ 문제 제기 : 지난 3년간 아베노믹스를 통한 일본 제조업의 재생을 점검

- 금년 2016년은 일본 제2차 아베 내각이 경제 성장 전략인 아베노믹스를 실행한 지 4년째를 맞이함¹⁾

- 2012년 12월 26일 출범한 일본 제2차 아베 내각은 그동안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고, 성장력을 복원하는 경제 정책으로서 소위 아베노믹스를 추진
- 향후 ‘재생의 10년’ 동안 평균 명목 GDP 성장률 3% 정도, 실질 GDP 성장률 2% 정도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2013년 상반기에 실행 전략인 ‘3개의 화살’(三本の矢) 시책을 수립, 추진해 오고 있음
- 제1화살. ‘대담한 금융 정책’: 본원 통화량 증대, 국채 무제한 매입 등
- 제2화살. ‘신속한 재정 정책’: ‘꺼진 경제를 발화’하기 위한 추경 예산 편성
- 제3화살. ‘신성장 전략’(『일본재흥전략』): 제1화살과 제2화살을 통해 얻은 디플레 탈피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행동으로 변화

< 아베노믹스 ‘3개의 화살’ >



- 이중 핵심인 ‘신성장전략’(『일본재흥전략』)은 2013년 6월 방안을 수립한 후 매년 실행 사항과 추진 방향 재점검을 통해 개정을 진행해 옴

- 2013년 『일본재흥전략』은 <일본 산업 재흥 계획>, <전략 시장 창조 계획>, <국제 전개 전략> 등 3대 실행 계획²⁾으로 구성되었으며, 실행 과제 별로 핵심 성과 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³⁾, 기한, 내용을 규정
- 2014년 개정에는 2013년 수립시 남은 과제와 지역 활성화 내용 추가

1) “※ 참고: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 추진경위, 주요내용 및 평가결과”의 “(1) 아베노믹스 추진 경위” 참조.
 2) 참고 자료의 “(2) 아베노믹스 ‘3개의 화살’ 및 『일본재흥전략』 실행계획” 참조.
 3) 2015년 10월 현재 136개 KPI가 설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참고 자료의 “(3) 『일본재흥전략』의 KPI 현황 및 KPI별 평가 결과” 참조.

- 2015년 개정에는 지금까지 치중했던 설비혁신에서 벗어나 ‘미래 투자에 의한 생산성 혁신의 실현’과 지역 활성화를 통해 경제 회복을 도모하는 ‘로컬 아베노믹스 추진’을 반영한 ‘아베노믹스 2단계’를 수립
- 본 보고서는 지난 3년간의 아베노믹스 실행에 따른 일본 제조업 측면에서의 변화를 점검해 재생 여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
 - 『일본재흥전략』은 주요 실행 활동으로서 제조업 부활을 목표로 한 투자 촉진 및 확대, 혁신 창출, 고용 확대 등을 제시4)
 - 본 연구는 이러한 실행 활동의 성과와 실행 기간의 제조업의 업황 및 재무실적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해서 일본 제조업의 재생 현황을 점검

○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일본재흥전략』의 주요 실행 활동을 통해 평가 지표를 도출하고, 여기에 제조업 성과 지표를 합하여 아래와 같이 총 7개의 투입 지표(2개)와 결과 지표(5개)를 선정하여 평가
 - 정책 실행 영역인 투자촉진, 혁신창출, 고용확대에서 제조업 관련 5개 지표를 도출하고, 제조업 성과 지표로 업황과 재무실적 2개 지표를 선정
 - 이를 투입 지표인 ①설비 투자, ② R&D와 결과 지표인 ③업황(생산, 출하, 재고), ④고용, ⑤재무실적, ⑥리쇼어링(reshoring), ⑦노동생산성으로 구분

< 연구 평가 영역 및 평가 지표 >

구분	세부 내용	평가 지표 (투입 or 결과)
아베노믹스 실행 활동	산업 신진대사 촉진 (민간 투자 활성화)	- 설비투자액 (투입) - 리쇼어링 추진 (결과)
	고용 제도 개혁	- 취업률 (결과)
	혁신 촉진	- R&D투자 (투입) - 생산성(결과)
제조업 성과	아베노믹스 실행 기간의 제조업 성과	- 업황:생산, 출하, 재고 (결과) - 재무:매출, 이익, 부채비율 (결과)

- 분석 방법은 아베노믹스가 시행된 2013년 전후를 중심으로 투입 지표와 결과 지표의 추이를 점검

4) 자세한 내용은 “※ 참고: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 추진경위, 주요내용 및 평가결과” 참조.

2. 일본 제조업의 재생 현황 점검

○ 투입 지표 : 설비투자, R&D 모두 미흡

- (설비투자) 제조업 설비투자는 정보통신기계, 전기기계, 수송용기계 등 업종을 중심으로 증가세로 전환했으나, 아직 투자규모 수준은 미흡
 - 제조업 설비투자는 아베노믹스 시행 초기인 2013년 상반기부터 바닥을 벗어나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4년(13.7조원)은 전년대비 6.4% 증가
 - 그러나 이는 부진했던 2013년 대비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며, 투자 규모 면에서는 2012년(13.7조원) 수준에 불과하며, 아직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침
 - 주요 제조업종 중에서는 정보통신기계, 전기기계, 수송용기계, 범용·생산용·업무용기계 등이 증가세를 보인 반면, 화학, 식료품제조는 감소세

< 제조업 설비투자 추이 >



< 주요 업종 설비투자 증감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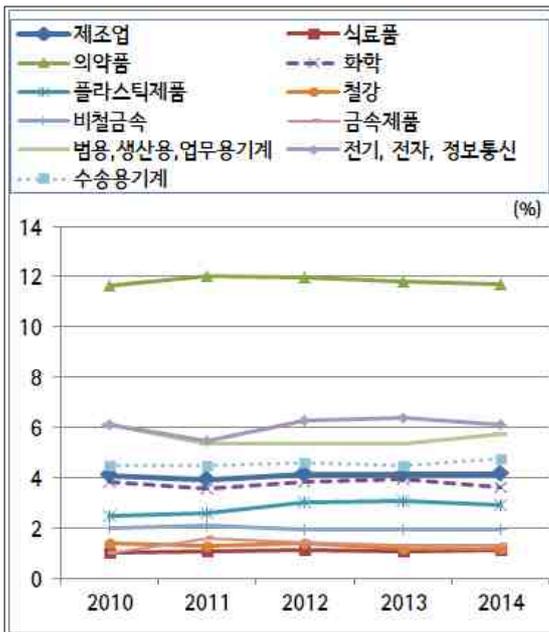


자료 : 일본 재무성, 法人企業統計調査. 각호.

- 주 : 1) 설비투자는 당기말 신설 고정자산합계 기준.
- 2) 2015.1Q~2Q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 (R&D) 제조업의 R&D집약도(=R&D/매출액)는 거의 변동 없으며, 정부의 산업생산기술 R&D 규모는 오히려 감소
 - 일본 제조업의 R&D 투자는 2013년 10.7조엔으로서 2012년 10.8조엔 대비 거의 같았으며, 이듬해인 2014년에 11.3조엔으로 5.2% 증가세 시현
 - 업종별로 매출액 대비 R&D 투자를 나타내는 R&D 집약도(R&D Intensity)는 아베노믹스 전후 수준과 거의 비슷한 추이를 나타남
 - 동비율이 제조업 전체(2013년 4.11%, 2014년 4.15%)보다 높은 업종인 의약품, 전기·전자·정보통신업, 범용·생산용·업무용기계, 수송용기계들은 여전히 높은 비율을 유지
 - 일본 정부의 R&D 예산(국방 제외)은 2014년에 2012년, 2013년 대비 오히려 감소했으며, 이중 제조 기술 혁신과 밀접한 산업 제품 및 제조공정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생산기술 R&D는 2012년 대비 7.1% 감소

< 제조업종별 R&D집약도 추이 >



< 일본 정부 R&D의 부문별 투자 추이 >

(단위: 억엔)

구분	2012	2014	증감률
정부R&D(국방제외)	35,850	34,898	-2.7%
농업	1,054	1,057	0.3%
수송, 통신및기타 인프라	1,253	1,201	-4.2%
에너지	4,194	4,413	5.2%
지구탐사·자원개발	560	499	-10.9%
보건	1,734	1,710	-1.4%
산업생산기술	2,406	2,235	-7.1%
우주탐사	2,350	2,154	-8.3%
환경	749	641	-14.5%
기타 (교육, 문화, 정치, 사회 등)	21,550	20,988	-2.6%

자료 : 일본 總務省 統計局, 과학기술연구조사, 각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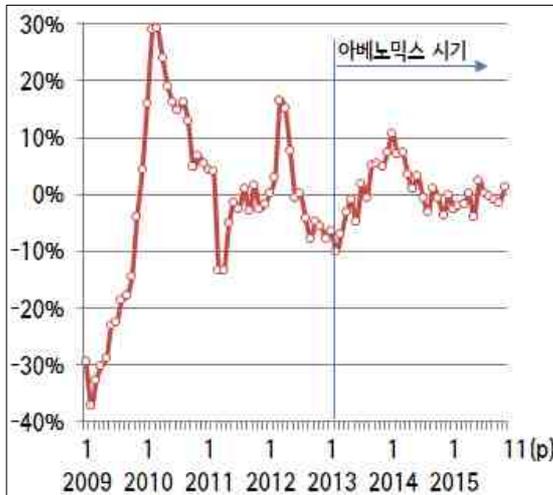
주 : 전기, 전자, 정보통신 = 전자부품·디바이스·전자회로제조업 + 전기기계기구제조업 + 정보통신기계기구제조업.

자료 : OECD.
주 : '기타'는 OECD 기준의 정부 R&D 14개 부문중 상기 표에 표시된 부문을 제외한 교육, 문화, 정치 및 사회시스템 등의 R&D 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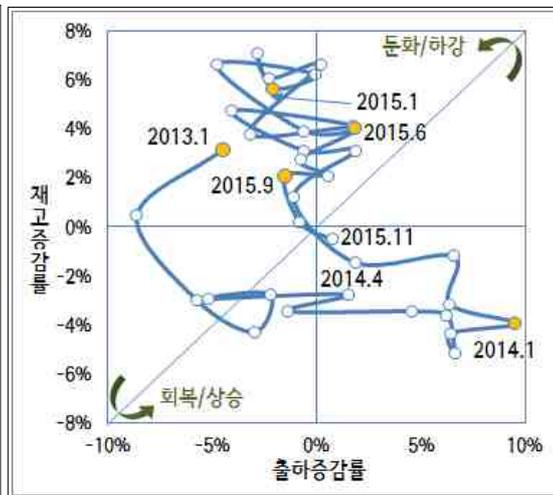
○ 결과 지표 : 일부 재무 지표(수익성, 건전성)를 제외한 대다수 지표 미흡

- (생산, 출하, 재고) 아베노믹스 실행 이후 일시적으로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곧 '생산 감소 - 출하 감소 - 재고 증가'로 오히려 둔화세를 보임
- 생산지수증감률은 아베노믹스 시행 초기에 증가세로 전환했으나, 이듬해인 2014년부터 하락세로 전환했으며, 하반기부터는 감소세로 악화
- 재고-출하 사이클 상으로는 2013년 '출하 증가-재고 감소'가 2014년 5월부터 '출하 감소-재고 증가'로 전환된 이후 대체적으로 동일한 기조가 2015년 9월까지 유지되어 오히려 둔화세를 시현
- 다만 2015년 2월 7.1%까지 올랐던 재고증감률이 점점 줄어들어 11월에는 -0.5%를 보였고, 동월 출하도 증가로 전환하면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임

< 생산지수증감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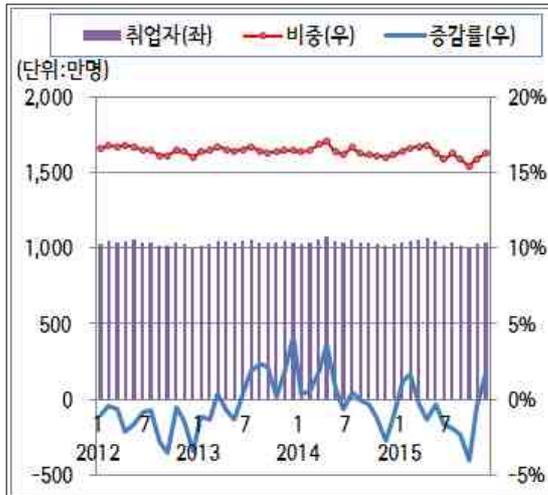
< 재고 - 출하 사이클 >



자료 : 일본 經濟産業省, 『鉦工業指數』, 각월호.

- (고용) 제조업 취업자가 2015년 하반기까지 줄어들었으며, 여성 인력과 5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 비중이 증가세 지속
- 2013년 초부터 증가했던 제조업 취업자가 2014년 5월부터 둔화세를 보이다가 동년 9월부터 감소세로 전환
- 전산업에서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2014년 7월 17.0%까지 올라갔던 것이 2015년 9월에는 15.4%까지 줄어들었으며, 그 이후 비중 증가로 전환
- 제조업 고용자(임원 제외) 중에서 정규직 비중이 2013년 1월 75%에서 2015년 1월 72%로 조금씩 축소

< 제조업 취업자 >



< 제조업 고용자: 정규직 vs 비정규직 >



자료 : 일본 총무성, 『노동력조사 기본통계』, 각호.

주 : 1) 15세 이상, 임원 제외, 전국 대상.

2) 취업자: 수입을 수반한 일을 1시간 이상한 종업자(從業者)와 일은 있지만 잠시 쉬고 있는 휴업자(休業者)를 모두 포함.

3) 고용자: 회사, 단체, 관공서 또는 자영업주에게 고용되어 급여·임금을 받는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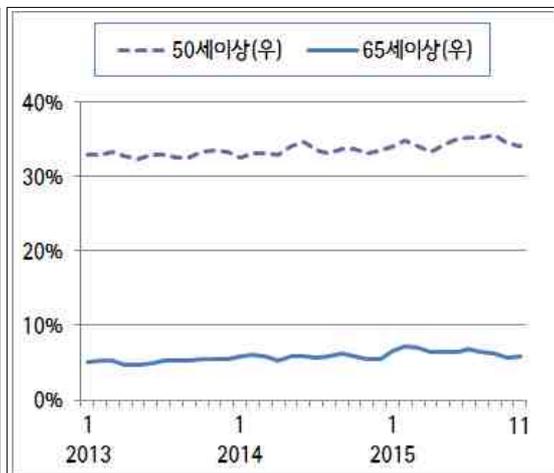
4) 좌측 그래프에서 '취업자'는 '제조업취업자', '비중'은 전산업 대비 제조업 취업자 비중,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증감률(%)을 나타냄.

- 고용 확대정책의 하나인 여성인력 확대와 관련해, 제조업 고용자(15세 이상) 중에 여성 고용자(임원 제외) 비중은 2013년 1월 29.2%에서 약간씩 늘어나 2015년 11월에는 31%에 달함
- 한편 50세 이상 비중은 동기간 33.0%에서 34.1%로 늘었고, 특히 65세 이상 비중은 동기간 5.0%에서 7.3%로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 여성 고용자 >



< 제조업 고령 고용자 >



자료 : 일본 총무성, 『노동력조사 기본통계』, 각호.

- (재무실적) 분기별 실적으로 매출액(성장성)은 정체, 영업이익(수익성)은 소폭 개선, 부채비율(건전성)은 개선

① **매출액** : 제조업 매출액은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에도 거의 변화없이 최근까지 분기 매출 100조엔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성장 정체 양상
 · 매출액증감률(전년동기대비)은 제2기 아베 정권이 들어선 후 개선되면서 2014년 1분기에 5.8%에 달했으나, 그 이후 0%대로 급락

② **영업이익**: 반면에 영업이익은 2013년부터 소폭이나마 상승하면서 매출액영업이익률이 +4~5%대로 나타나면서 수익성은 개선되는 추이

< 매출액 분기 추이 : 성장성 >

< 영업이익 분기 추이 : 수익성 >



자료 : 일본 재무성 재무총합정책연구소, 法人企業統計調査.

③ **부채비율**: 제조업 부채비율은 2012년 1분기 136.2%를 보인 이후 줄어들었으며, 2014년 2분기 부터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2015년 3분기에는 108.4%로 나타나 재무 건전성이 개선

- 자본금이 10억엔 이상 제조업체는 2005년 1분기에 부채비율이 100.1%로 낮아졌고, 2015년 3분기에는 94.7%로 부채보다 자본이 많은 수준으로 개선
- 반면에 자본금 1억엔~10억엔 미만 업체의 부채비율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제조업 규모별(자본금 기준) 부채비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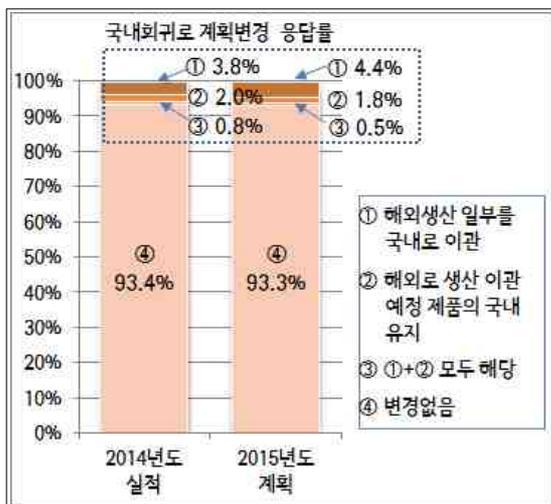


자료 : 일본 재무성 재무총합정책연구소, 法人企業統計調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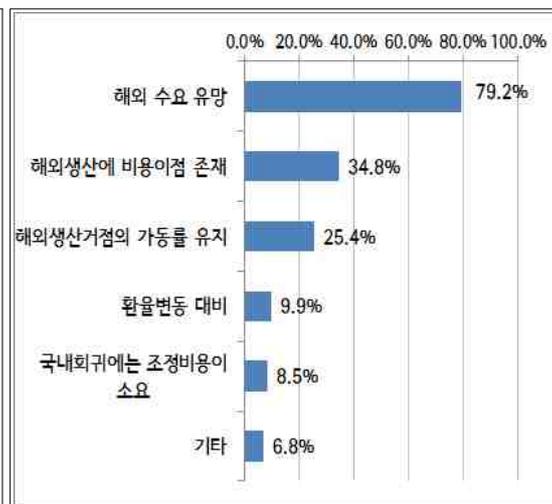
- (리쇼어링) 해외 생산을 국내 생산으로 방침을 전환한 리쇼어링 추진 기업은 제조업 전체에서 약 7%

- 제조업체 조사에서 2014년도 실적과 2015년도 계획을 대상으로 해외 생산을 국내로 이전하는 리쇼어링에 대한 응답률이 약 7%에 달함
- 리쇼어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해외 수요가 유망하다는 것과 해외 생산의 비용 이점이 존재한다고 꼽음
- 엔화 약세가 진행되어도 해외 수요지에 근접 생산, 환율변동에 중립적인 생산체제 유지를 위해 리쇼어링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해석

< 리쇼어링(국내회귀) 유무 >



< 리쇼어링 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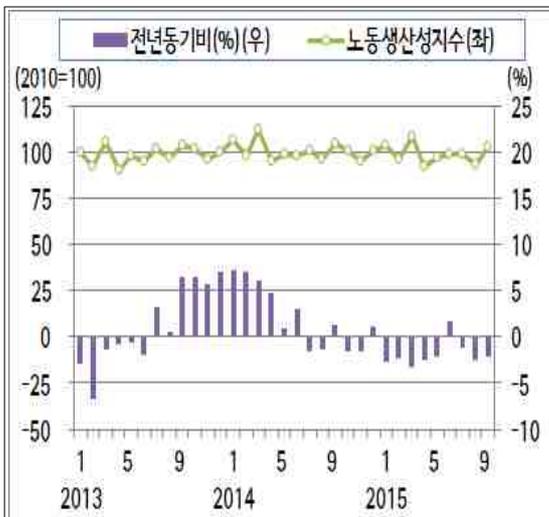
자료 : 日本政策投資銀行. 『特別アンケート 企業行動に関する意識調査結果 (大企業)』, 2015.8.

주 : 1) 자본금 10억엔 이상 대기업 대상.

2) 응답업체수: 2014년도 392개사, 2015년도 390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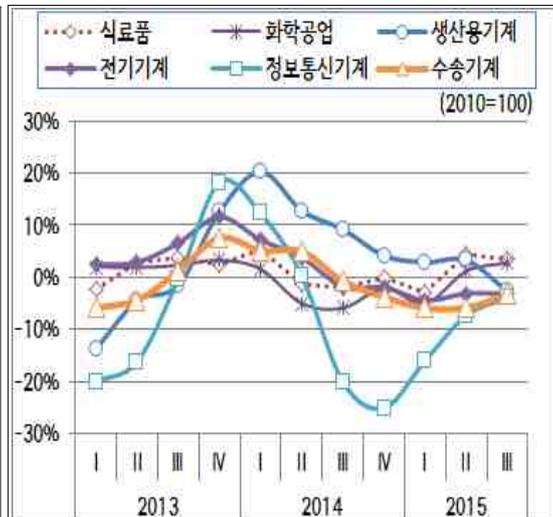
- (생산성)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가 2014년 하반기부터 오히려 감소세로 전환, 지속
 - 아베 정권 출범을 전후에 급상승 하였던 노동생산성 (2010=100)이 제3회 화살을 발표한 2013년 6월부터 약 1년간 증가세를 지속
 - 그러나 2014년 하반기부터 노동생산성이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로 전환 되었으며, 2015년 9월까지 거의 대부분 감소
 - 식료품, 화학공업을 제외한 주요 업종별에서 2014년 2분기 또는 3분기부터 감소세가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기계의 변동폭이 큼

< 제조업 노동생산성 (월별) >



자료 : (財)日本生産性本部, 『生産性統計』.

< 주요업종별 노동생산성 (분기별) >



자료 : (財)日本生産性本部, 『生産性統計』.
주 :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감률(%).

- 종합 평가 : 현재로서 일본 제조업의 재생 모습은 미흡. 그러나 향후에는 그동안의 실적 개선과 강력한 정부 정책을 뒷받침으로 해서 제조업의 재생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판단
- 종합적으로 현재 일본 제조업에게 『일본재흥전략』의 정책 슬로건인 <자신감을 회복해 '기대'에서 '행동'으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수준
 - 아베노믹스 시행 초기에는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대다수 지표가 전반

- 적으로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하락 또는 감소세를 보임
- 설비투자 부문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평가 항목에서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수준
- 일본 제조업에게는 아베노믹스 제3화살 ‘신성장전략’(일본재흥전략)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행동으로 변화’한다는 정책 목표의 실천 결과가 아직 뚜렷하게 보이지 않음

<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제조업 재생에 관한 종합 평가 >

항목		평가 내용
투입	설비투자	- 제조업 설비투자는 증가세로 전환했으나, 규모 수준은 미흡 - 정보통신, 전기기계, 수송용기계 등 업종에서 증가세 시현
	R&D	- R&D집약도(=R&D/매출액)는 거의 변동 없음 - 정부의 산업생산기술 R&D는 오히려 축소
결과	생산, 출하, 재고 동향	- ‘생산 감소, 출하 감소, 재고 증가’ 추세로 오히려 경기 둔화 모습 - 2015년 11월 ‘재고 감소 - 출하 증가’로 국면 전환
	고용	- 제조업 취업자가 감소 - 여성과 5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자 비중이 증가
	재무실적	- 매출액 정체, 영업이익 소폭 개선, 부채비율 개선
	리쇼어링	- 리쇼어링 추진 기업은 조사대상 제조업체의 약 7%
	생산성	-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가 2014년 하반기부터 오히려 감소세로 전환

- 일본 정부는 앞으로 제조업 재생을 위한 실효적이면서 강력한 정책 집행이 예상
- 일본 내각부의 2015년 3월 조사 결과⁵⁾에 따르면, 제조업체는 향후 5년간 (2015~2019년도) 평균 명목GDP는 1.8%, 실질GDP는 1.5% 그리고 향후 3년간 (2015~2015년도) 설비투자 4.19%로 응답
- 이러한 조사 결과는 아베노믹스의 실행 목표로 삼은 “향후 10년간 평균 명목 GDP 성장률 3% 정도, 실질 GDP 성장률 2% 정도의 성장 지향”에

5) 일본 내각부, 『기업 행동에 관한 앙케이트 조사 2014년도』, 2015.3.

미흡한 조사 결과임

- 따라서 일본 정부는 최근 개선되고 있는 제조업 경기를 가속화하고 아베노믹스 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더 제조업 재생을 견인할 실효적 정책 추진이 예상
- 이미 2015년 11월 26일에 당초 2017 회계연도에 계획했던 법인세 인하를 1년 앞당긴 2016년도에 적용하기로 발표
- 그동안 재무 체질을 강화해 온 일본 제조업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뒷받침을 배경으로 이제부터 르네상스로의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

3. 시사점

- 일본의 제조업 정책과 제조업체의 대응을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의 기존 제조업 혁신 정책을 조기 실행하면서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검토
 - 2015년 일본재흥전략 개정판은 아베노믹스의 전반기 동안에는 일본 산업 정책이 기존 부진한 것을 개선하는 수비형 정책에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미래 혁신을 지향하는 공격형 정책으로 재편하기로 결정
 - 그에 따라 새로운 실행 과제로 제조업 혁신과 관련된 ‘신시대를 향한 도전을 가속 (제4차 산업혁명)’을 추가
 - 한국은 이에 대응하여 기존에 수립한 산업 활성화와 제조업 재생 정책을 앞당겨 추진하면서, 제조업 혁신을 더욱 가속화
-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마련된 성장가속화 전략인 『개혁2020』에 대한 대응 및 활용 방안을 마련
 - 『개혁2020』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모멘텀으로 삼아 개혁과 혁신을 가속화하여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전략
 - 이의 실행 프로젝트는 모두 6개로 구성되어 있음
 - ① 기술 등을 활용한 사회적 과제의 해결 및 솔루션 수출(4개): 차세대도 교통시스템, 에너지·자원 기술, 첨단로봇기술, 의료서비스
 - ② 방일관광객의 확대를 위한 환경 정비(1개)

- ③ 대일직접투자의 확대를 위한 환경 개선 (1개)
- 한국 정부와 제조업체는 자원 투입과 시장 개발이 집중될 동 프로젝트에 대응한 기술 개발과 시장 선점할 수 있는 전략 개발이 요청
- 차세대 제조업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민간 업체 - 정부 - 학계의 공동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일본 정부는 산업 활력을 고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환경 개선과 신기술, 신산업 창출 등 다각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중
 - 이의 실현에 최대 관건인 민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새로운 대화 창구를 창설할 계획
 - 현재 실적 부진 상황을 시급히 벗어나야 하고, 주변국의 제조업 혁신에 대응해야 할 한국 제조업체로서는 정부와 민간, 학계 등과의 긴밀한 협조가 절실히 요구됨
 - 더욱이 최근 주요 제조경쟁국의 정책은 생산성 증진을 목표로 신소재 및 신기술 개발, 제조업-서비스업-ICT업 결합으로 기존 제품, 제조방식을 변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개별 조직 차원의 대응은 거의 불가능
 - 정부, 학계 그리고 제조업, 서비스업 구분없이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업체 등 모든 업종의 업체가 참여해 미래 제조업 혁신을 가속화하는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

이장균 수석연구위원 (2072-6231, johnlee@hr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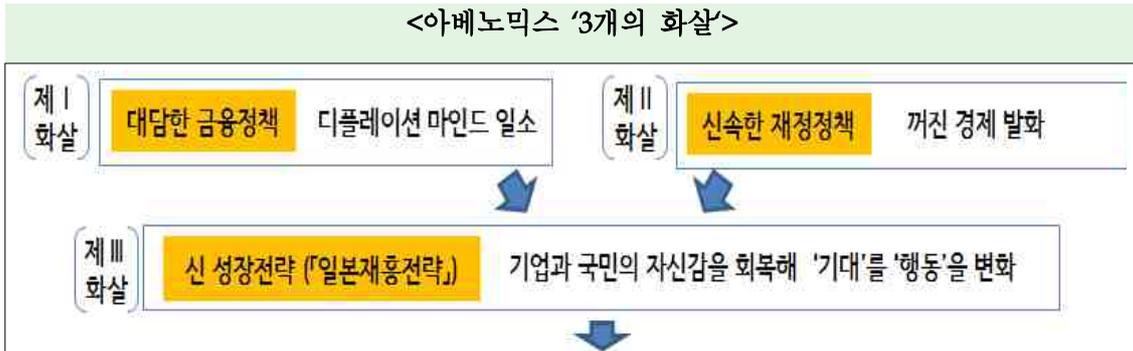
※ 참고: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 추진경위, 주요내용 및 평가결과⁶⁾

1) 아베노믹스 추진 경위

- 2006. 9 - 제1차 아베 내각 발족 (~ 2007년 8월 27일)
- 2012.11 - 총선 공약 발표 : ‘일본경제재생본부’, ‘산업경쟁력회의’ 설치, ‘일본경제재생·산업경쟁력강화법’ 제정
- 2012.12 - 제2차 아베 내각 발족 (~ 2014년 9월 3일)
 - <일본경제재생본부>(미시경제), <경제재정자문회의>(거시경제) 설치
- 2013. 1~6 - 성장전략으로 <3개의 화살>(三本の矢) 시책 발표(4.19, 5.17, 6.5)
 - 2월. 추경예산안 통과 (약 13조 1,000억엔)
 - 4월. 일본은행의 자금 공급과 국채매입 등 금융완화책
 - 6월. <일본재흥전략 -JAPAN is BACK-> 각의 결정
- 10 - 성장전략의 실행 방침 수립
- 2014. 1 - <산업경쟁력 강화에 관한 실행계획> 각의 결정
 - 6 - 『일본재흥전략 개정 2014』 수립
 - 9 - 개각
- 12 - 제3차 아베 내각 발족 (~ 2015년 10월 7일)
 - 일본경제재생본부, 『아베노믹스 성장 전략의 실행·실현』 방침 결정
- 2015. - 성장전략 진화를 위한 금후 검토 방침 사항 결정
 - 2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행 계획』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점 시책 보고서』 각의 결정
 - 9 - 아베노믹스 2단계 (state 2)의 ‘새로운 3개 화살’ 발표
 - 명목 GDP 400조엔의 600조엔 증대
 - 적극적인 육아대책을 통한 출산율 1.4를 1.8로 향상
 - 안심할 수 있는 사회보장
- 10 - 제3차 아베 내각 개편 => 2단계 아베노믹스 추진
 - 50년후에도 1억 인구 유지를 의미하는 ‘1억 총활약’을 향후 3년간 간판정책으로 내걸고, 담당상 신설
 - ‘1억 총활약’ 국민회의를 발족하고, 연내 실행 방안을 수립

6) http://www.kantei.go.jp/jp/headline/seicho_senryaku2013_old.html.

2) 아베노믹스 '3개의 화살' 및 『일본재흥전략』 실행계획



<『일본재흥전략』의 3가지 실행계획>

일본산업재흥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내용: ·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는 제조업 부활, 부가가치 높은 서비스 산업 창출 · 기업 활동이 용이하고, 개인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 실현 - 실행 주제: · 긴급 구조 개혁 프로그램(산업의 신진대사 촉진): 민간투자확대, 사업재편 촉진 등 · 고용 제도 개혁, 인재력 강화 · 과학 기술의 이노베이션 추진 · 세계 최고 수준의 IT 사회 실현 · 입지 경쟁력의 한층 강화 · 중소기업, 소규모사업자 혁신
전략시장창조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내용: 일본 및 전세계가 직면한 사회과제중에서 일본이 경쟁력 있고, 글로벌 시장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를 선점 - 실행 주제: ·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 · 청정하고, 경제적인 에너지 수급 실현 · 안전, 편리하고 경제적인 차세대 인프라 구축 · 세계를 사로잡는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성 높은 지역사회의 실현
국제전개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내용: · 세계 시장 적극 전개, 외국인 직접 투자 확대를 통해 인력, 물품, 자금을 일본으로 끌어당겨서 세계의 경제 성장을 차지 · 일본 국내의 글로벌화 철저 · 국내외에서 민관일체에 의한 전략적인 대응을 전개 - 실행 주제: · 전략적인 통상관계의 구축과 경제 협력 추진 · 해외시장 획득을 위한 전략적 대응 · 일본 성장을 지탱하는 자금, 인재 등에 관한 기반 정비

3) 『일본재흥전략』의 KPI 현황 및 KPI별 평가 결과

- 2015년 10월 현재 실행 주제에 대해 설정한 KPI는 136개임 (*비교: 2014년 117개 KPI)
- 아래 표는 KPI별로 현재 진척도를 A, B, F, N으로 평가한 현황

< 『일본재흥전략』 진척도 평가 상황 >

KPI 평가	내용	진척도 평가 (KPI 개수 및 비중)	
		2014.9월	2015.10월
A	목표달성기간을 기준으로 현재 경과기간의 비율 이상으로 진척도를 보임	35 (30%)	57 (42%)
B	상기 A 정도로 진척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경우	17 (15%)	25 (18%)
F	시책 실행 자체가 KPI로 되어 있어, 매년 실행 상황 점검	20 (17%)	18 (13%)
N	평가 판단이 나중에 가능해, 현시점에서 평가 불가능한 경우	45 (38%)	36 (27%)
합계		117 (100%)	136 (100%)

자료 : 일본경제재생본부, 『日本再興戰略 改訂2015KPIの主な進捗状況』, 2015.10.15.

4) 『일본재흥전략』 실행주제별 시책중 제조업 관련 시책에 대한 평가지표 (2015년 개정판 기준)

실행 주제	· 관련 시책(KPI 번호)	평가 ('15년)
	제조 기술 및 산업 관련 KPI 번호, KPI 설정 목표치	
긴급 구조 개혁 프로그램 (산업의 신진대사 촉진)	· 민간투자 활성화(1) · 벤처투자·재도전투자의 촉진, 벤처 창조의 호순환 실현(2) · 비즈니스 혁신 추진(3)	
	1.향후 3년내(2015년도까지) 설비투자를 리먼쇼크 이전 수준(연간 약 70조엔, 2007년까지 5년간 평균) 회복	A
	2.개업률('13년도 4.8%)이 폐업률(4.0%)을 상회하고, 두 비율을 미국·영국 수준(10%)에 도달	N
고용 제도 개혁, 인력 강화	3.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증가율이 2020년까지 2.0%(2013년 0.8%) 도달 *2015 개정시 포함	N
	· 고용유지형에서 노동이동지원형으로 정책 전환, 민간 인재사업 활용에 의한 매칭 기능 강화 (4~9) · 노동방식 다양화 실현(6) · 청년,고령자 등 활약 촉진(10~14) · 글로벌화 등에 대응한 인재 강화(15~19) · 여성의 활약 촉진(20~30) · 외국인재의 활용(31)	

(다음 페이지로 이어짐)

(이전 페이지에 이어서)

실행 주제	· 관련 시책(KPI 번호)	평가 ('15년)
	제조 기술 및 산업 관련 KPI 번호, KPI 설정 목표치	
대학개혁 / 과학 기술의 이노베이션 추진 / 세계 최고의 지적재산업국	·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 사령탑 기능 강화, 연구지원인재를 위한 자금 확보(32)	
	· 국민 연구개발 투자 강화(32~33)	
	· 이노베이션 내셔널시스템 구현 (19, 34~38)	
	· 지역이노베이션 추진(32, 39~42)	
	· 지적재산전략 표준화 전략의 강화(43~45)	
	· 로봇 신전략 추진 등(46~47)	
	32. 향후 5년내(2015년말까지) 이노베이션(기술력) 세계 순위 1위 달성	B
	33. 국민 합쳐 연구개발투자의 GDP 대비 비율을 5년내(2017년 말)에 4% (2013년도 3.75%)	A
	39.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비중을 2019년까지 약 15%(2014년 13%)	A
	42. 2020년까지 중견, 중소기업의 우수기술, 제품의 표준화를 100건 실현	N
	47.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을 연간 2% 향상 (2014년 전년대비 3%)	A
세계 최고 수준의 IT 사회 실현	· IT 활용 저변 확대를 위한 규제·제도 개혁, 공공 데이터 민간개방 등	
입지 경쟁력의 한층 강화	· 국가전략특구 실현 / 산업인프라 정비 / 도시 경쟁력 향상 (56~57)	
	· 공공 시설등 운영권 등 민간 개방 (56~58)	
	· 금융·자본시장 활성화 등의 검토 / 공적·준공적 자금의 운영 방식 (56~57)	
	·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 에너지 절감 / 전력, 가스, 열공급 시스템 개혁 (59~60)	
	· 고효율 화력 발전(석탄, LNG) 도입 (61~64)	
	· 석유, LPG가스 공급 체인 등 유지, 강화 (65~66)	
	· 2국간 옅셋 크레딧 제도 (JCM) (67~68)	
	56. 2020년까지 세계은행의 사업환경순위를 선진국 3위 이내(현재 15위)	B
지역 활성화·지역구조 개혁의 실현/ 중견기업·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 혁신	· 지역자원의 활용·결집·브랜드화(2, 69)	
	·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의 신진대사 촉진 (2)	
	· 전략시장에 진입하는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 지원(70)	
	· 국제 전개하는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 지원(71)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	· 효과적인 예방서비스 및 건강관리 충실화에 의해 건강하게 살고 노령화될 수 있는 사회(72~76)	
	· 의료관련산업의 활성화에 의해 세계 최첨단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77~79)	
	· 양질의 의료, 간호서비스로 사회 복귀를 앞당길 수 있는 사회(80~91)	

(다음 페이지로 이어서)

(이전 페이지에 이어서)

실행 주제	· 관련 시책(KPI 번호)	평가 (‘15년)
	제조 기술 및 산업 관련의 KPI 번호, KPI 설정 목표치	
청정하고, 경제적인 에너지 수급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정하고, 경제적인 에너지가 공급되는 사회 실현(92~95) · 경쟁을 통해 에너지의 효율적인 유통이 가능한 사회 실현 (96~98) · 에너지를 현명하게 소비하는 사회 실현 (99~108) 	
안전, 편리하고 경제적인 차세대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하고, 강인한 인프라로 저비용 실현 사회 (109) · 사람, 물건이 안전, 쾌적하게 이동 가능한 사회 (110~111) · 생산 현장의 강화 (112~115) 	
	<p>110. 2020년에 안전운전지원장치·시스템이 국내차량 20%에 탑재, 세계 시장 30% 획득 (2013년 국내차량탑재율 1.5%)</p> <p>111. 2030년에는 안전운전지원장치·시스템이 국내판매신차에 약 100% 탑재</p>	N F
세계를 사로잡는 지역자원으로 수익성 높은 지역사회의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현장의 강화(112~115) · 국내 밸류체인의 연결 (116~117) · 수출 촉진 등 (118) · 방일촉진에 관한 계획책정 및 실행 / 비자발급요건 완화 등 방일 환경 개선 / 새로운 관광 창출 (119~123) · 외국인 관광객의 체류 환경 개선 (119~124) · 국제 회의 등(MICE) 유치 체제의 구축·강화 (125) 	
국제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적인 통상관계의 구축과 경제 협력 추진 (126) · 지역별 전략 거점 시장 개척 (127~129) · 인프라 수출·자원 확보 (130~131) · 해외 전개의 잠재력 있는 중견·중소기업 등에 관한 중점적 지원 (132~133) · ‘Cool Japan’ 추진 (134~135) · 대내 직접투자의 활성화 (136) 	

자료 : 일본경제재생본부, 『KPIの進捗状況』, 2015.10.15.

주 : 상기 표는 제조 기술 및 산업 관련 KPI에 대해서만 평가 결과를 제시했으며, 각 KPI는 아래 기준에 의해 A, B, F, N으로 평가.

- A : 목표달성기간 대비 경과기간의 비율 이상으로 진척.
- B : 상기 A 정도로 진척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경우.
- F : 시책 실행 자체가 KPI로 되어 있어, 매년 실행 상황 점검.
- N : 평가 자료 문제로 평가 판단이 나중에 가능해, 현시점에서 평가 불가한 경우, 현시점에서 평가가 곤란한 경우.